

<2011년 7월 31일 주일말씀>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

본 문 마태복음 16장 26절

히브리서 6장 4-6절

요한계시록 20장 13-15절, 21장 8절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과 평강을 빕니다. 오늘도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의 뜨거운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 달에 새로 오신 분들을 위해 말씀하며 예배 드리는 주일입니다. 새로 오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을 이곳으로 인도하여 가르치고 관리하여 구원받게 함이 합당하여 주님께서 전도자를 통해 여러분을 이곳으로 오게 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생명의 사역자들은 정말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생명을 살리려고 주님께 인도한 자들은 정말 큰 사명자들입니다.

농부가 나무는 산에다 가꾸고 곡식은 논밭에 가꾸듯이,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이 각 생명들을 보시고 각각 합당한 곳으로 인도하여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구세주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 말씀을 가르쳐 저마다 믿고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마치 사람의 각 지체가 각각 그 위치에 존재하며 한 생명을 이루듯이, 하나님은 각 사람들을 각자의 개성대로 합당한 곳으로 부르셔서 구원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선생도 어렸을 때 기독교에서 크다가 주님이 합당하게 부르셔서 주님이 행하시는 이 시대 새 역사, 중심 역사에 참여했습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저마다 존재하고 살아가기 위해 정말 할 일이 많습니다. 그 일을 하다 보면 마치 열차를 타고 먼 길을 달려가듯 바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청춘이 지나고, 중년기와 노년기가 순간순간 닥쳐옵니다. 이렇게 바쁜 인생인데, ‘인생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오늘 전하는 말씀을 차근차근 잘 들어 보기 바랍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주의 다른 별들에 비해 가장 아름다운 곳,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천국 같은 곳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곳은 바로 ‘지구’입니다.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빛의 속도로 가는 데 150억 년이나 걸립니다. 우주는 그 만큼 큼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 넓은 우주에서 ‘태양계’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마치 정원같이 창조하셨습니다.

태양계에는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토성 등 행성들이 있습니다. 이 행성들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구’에만 생물들이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또 지구에만 사람이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지구의 많은 생명체 중에서도 ‘사람의 육체’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람의 영혼’만 하나님의 신적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이는 산에서 20년 동안 기도할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으로 우주를 가 보게 하시고 직접 확인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대 말씀을 외치면서 그동안 이것을 가르쳤습니다. 이곳은 초등학생들도 주님의 가르침을 받은 선생의 말을 듣고 전체 윤곽을 알고 삽니다.

요즘 TV 프로그램 중의 하나인 동물의 왕국을 보면 원숭이가 나무 꼬챙이로 굴속에 있는 동물들을 찢어 자극하여 굴에서 나오면 잡아먹는 것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이런 모습을 보고 인간이 원숭이에서 진화한 것처럼 말을 합니다. 이는 미련한 자들의 생각입니다. 짐승은 짐승이고, 사람은 사람입니다.

사람이라도 짐승 같으면 짐승 같은 생각을 합니다. 우주에 지구 같은 곳이 또 있다고 찾아다니는 짐승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 학문을 배울 만큼 배운 자들이 짐승이 진화되어 사람이 되었다느니, 우주에 지구 같은 곳이 또 있다느니 하며 정신적으로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이는 모두 하나님을 제대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짐승 같은 생각을 하고 사는 것입니다.

시편 49편 20절을 보면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또 전도서 3장 18절을 보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했습니다.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은 짐승과 같습니다.

인간의 ‘육’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육’으로 창조하셨고, 인간의 ‘영’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삼위의 하나님이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시작하여 사람으로 끝나고, 짐승은 처음부터 짐승으로 시작하여 100억만 년이 가도 짐승으로 끝납니다. 원숭이가 500만 년 동안 진화됐어도 불구자 같은 사람으로 된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앞으로 원숭이는 지구상에서 멸종됩니다.

원숭이를 연구해서 뭘 합니까? 자기를 연구하고, 영을 연구하고, 창조주 하나님과 구주 예수님을 연구하여 영원히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생은 50년 동안 나를 연구하고, 예수님을 배우고, 성령님을 배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을 떠나 수천 년 동안 지구와 동물에 대해 연구한 자보다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어떤 자들은 UFO나 연구하고 있습니다. 모두 정신이 이상 된 자들의 연구를 듣지 말아요. 성경에 다 있습니다.

짐승은 정신과 혼만 있고 ‘영’이 없어서 사람이 되지 못합니다. 짐승들은 만물의 영장인 인간이 키우는 동물이나, 혹은 먹는 음식밖에 안 됩니다. 영이 없으므로 구원의 대상이 아닙니다. 천국에 있는 동물들은

땅에 있는 동물들이 구원받아 그 영이 천국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천국에 따로 창조된 동물들입니다.

사람은 ‘형상과 모양’이 짐승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각’은 짐승같이 변해서 짐승의 생각의 위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인간으로서 깨닫지 못하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짐승은 짐승의 형상과 모양이 사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역시 그 정신과 생각도 사람의 정신과 생각의 위치로 올라오지 못합니다. 이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계를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짐승의 생각이 만물의 영장인 사람의 수준에 올라오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떨어지기가 쉬우니 짐승의 생각으로 내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일체 되어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면 신의 경지에 이르게 역사하십니다. 또한 인간의 영이 하늘나라까지 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20년 동안 선생을 가르치실 때 우주 만물과 세상과 인간과 동물에 대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부모가 사랑하여 어머니의 태를 통해 우리를 낳았듯이, 인간의 영과 육은 ‘지구’라는 태를 통해 낳으셨습니다. 우주는 사람의 몸이라면, 지구는 생명을 낳는 존재 세계로 여자의 태와 같이 창조하셨습니다. ‘육신’은 땅을 기반하여 만물과 작용하며 살고, ‘영’은 육신과 작용하며 영이시고 하늘에 계신 창조자 하나님과 작용하며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영상1>

- ① 우주의 태양계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 그중의 지구 → 지구 안의 생물들 → 그리고 사람(육) → 사람의 영 → 육신 통해 영혼 구원받고 하늘나라로 간다.

<자막과 설명>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우주에서도 ‘태양계’를 가장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 태양계의 행성들 중에서

유일하게 지구만 생물들과 사람이 살게 창조하셨습니다. / 지구 안의 생명체 중에서 오직 ‘사람의 육체’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또 ‘사랑의 영혼’만 하나님의 신적 모양과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 곧 사람의 육신을 통해 사랑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주 만물과 지구와 생물과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체 윤곽입니다. 이는 선생이 산에서 20년 동안 기도할 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② 고릴라가 나무 꼬챙이로 굴속에 들어 있는 동물을 찌르고 자극하여 그 동물이 굴에서 나오면 잡아먹는 모습 (자료 영상)

<설명>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원숭이가 진화하여 인간이 됐다는 식으로 말하기도 합니다.

③ 동물로 태어남 → 동물로 죽는 모습

사람으로 태어남 → 사람으로 죽는 모습

(원숭이가 변화된 것이 아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 크로마뇽인은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사람이었다. 사람의 모습이 점차 변화된 것이다. - 이 모습 표현)

<자막과 설명> 동물은 처음부터 동물로 태어나고 동물로 죽습니다. / 사람은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고 사람으로 죽습니다. / 인류 최초의 인간의 모습이 지금과 다르다고 해서 원숭이가 진화된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사람으로 태어나서 인류 문명의 발달과 함께 사람의 모습이 오늘날같이 점차 변화된 것입니다.

④ 동물 (육) / 사람 (육, 영)

<자막과 설명> 동물은 ‘영’이 없습니다. 육체와 정신, 곧 혼만 있습니다. 사람에게만 ‘영’이 있습니다.

⑤ - 사람의 형상 → 동물 형상으로 변하지 않는다.

- 사람의 생각



동물 생각(으로 떨어진다.)

- 동물의 형상, 생각 → 사람의 형상, 생각으로 변하지 않는다.

<자막과 설명> 사람은 형상과 모양이 짐승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생각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짐승같이 변합니다. / 짐승은 그 형상과 모양도, 생각도 사람같이 변하지 않습니다.

⑥ 엄마의 몸 = 우주 / 엄마의 태 = 지구

엄마의 태 속 세계 - 그 안에 생명이 자란다.

지구 태 속 세계 - 그 안에 생명들이 태어나고 자란다.

<자막과 설명> 사람이 엄마의 몸속에 있는 태 안에서 만들어지고 나왔듯이, 하나님은 우주를 몸같이, 지구를 태같이 창조하시고 그 안에서 생명들이 잉태되고 자라게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세상에 태어나서 존재하기 위해 할 일이 많지만, 최고의 할 일이 있으니 ‘육신과 영혼이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그가 보내신 구세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고 사는 일’입니다.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을 이루고 사는 일이 인생이 태어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도 꼭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날, 그 시간, 그 주간에 제일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기고, 사고가 나고, 고통이 오고, 존재하지 못하게 됩니다. 절대 법칙이며 절대 원리입니다.

사람이 꼭 먼저 할 일이 무엇인지 모두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만 말 할까요? 밖에 나가기 전에는 먼저 옷부터 입어야 됩니다. 밖에 나가는 것 먼저 하고 옷은 나중에 입지 않습니다. 옷 먼저 입고 밖에 나갑니다. 맞지요? 또한 침단으로 볼 일이 급할 때는 어떤 일이라도 다 제치고 화장실 먼저 가야 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고 해도 먼저 볼 일 보러 화장실 안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마다 겪었는데 아직도 못 깨달았습니까? 그럼 하나 더 말하겠습니다. 차 여러 대가 쏜살같이 달려오고 있는데, 횡단보도에서 오랫동안 찾

던 애인 만났다고 껴안고 키스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건너가는 것 먼저 해야 자기도 애인도 살아 껴안든지, 같이 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고, 그다음 할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먼저 할 일을 먼저 해야 되는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며 구원을 위해 보내신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며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일입니다. 사람은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을 받고 살아야 인생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구세주 예수님을 떠나서 사망에 사는 육과 영혼은 영계에서 보면 물에 떠내려가는 자와 같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자 같아서 어떤 것을 얻어도 허무하고 허탈합니다. 기쁨이 없고 곤고합니다. 그 영혼이 결국 사망으로 가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육신도 어떻게 돕지를 못하고 괴로워합니다. 그 같은 인생은 육신이 이 세상에서 생을 마친 후에도 영원한 영혼의 소망이 없습니다.

오늘 새벽기도를 마치고 나니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는 무엇보다 먼저 내가 하는 말을 기록하여라. 새 신자 주일말씀 먼저 하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썼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세상에서 120층짜리 건물을 100개씩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귀하고 가치 있고 중한 일이 있으니,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나 예수를 진정 믿고 사랑하며 사는 일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귀한 일을 모르고 산다. 나 예수를 믿고 내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에서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최우선으로 믿고 사는 자는 세상에서 120층짜리 건물 100개를 가지고 살면서 나를 믿지 않고 사는 자보다 훨씬 나은 자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고 산다.”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120층짜리 건물 100개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재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그 영혼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

으로 가게 됩니다. 고로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것이 다 허무로 끝나게 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 같은 건물이 없어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서 천국을 배경으로 삼고 주님이 예비하신 집에서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120층짜리 건물 100개 가진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마치 결혼했을 때 신랑이 가진 것을 신부가 자기 것같이 다 누리고 살듯, 천국에 가면 신랑 되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신부 된 우리들이 다 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사는 자들이 구원받으면 천국에 있는 것을 모두 다 누리면서 영원히 삽니다.

인생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할 일인 ‘자기 구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면 그 육도 영도 사망으로 가서 삽니다. 선생은 지옥을 수백 번이나 갔다 왔습니다. 그래도 지옥 이야기보다 더 급히 해야 될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국 이야기도 아닙니다. ‘오직 구원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구원받는지 말해 주어 구원을 받으면 지옥에 안 가고 천국에 가니 문제가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지옥 이야기, 천국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구원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람이 몰라서 지옥 쪽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알아서 구세주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천국 쪽으로 인생을 살아갑니다.

주님은 전능자이시며 삼위 중의 성자이시며 지옥과 천국과 영계와 육계를 다 아시는 신이십니다. 고로 한마디로 인생들을 평가하며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돈을 산같이 쌓을 정도로 많이 벌어 놓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보물도 사서 천하를 자기 것처럼 삼고 누리면 뭐하냐? 네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잃어 사망 지옥으로 가는데 무엇이 유익하냐?” 하셨습니다. 영계에 가서 사람의 영의 실정을 보고 와야 제대로 압니다.

<영상2>

①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인간이 태어나서 최고 먼저 할 일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받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축복을 받고 사는 일입니다.

② 횡단보도에서 애인을 만났다. 그런데 옆에서 차가 달려오고 있다.
이때 가장 먼저 할 일을 피하는 일이다. /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과 영을 구원하는 일이 인생이 제일 먼저 할 일이다.

<자막과 설명> 인생은 죽음의 일 먼저 해결해 놓고 살아야 합니다. 차가 오면 그 상황을 피하는 것이 먼저 할 일입니다. / 이와 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육과 영의 죽음 문제 먼저 해결하고 살아야 됩니다.

③ - 지구 :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

영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간다.

↗ (육신이 죽으면 육은 사라지고)

육과 영 (생명권)

- 지구 :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육과 영 (사망권)

↘ (육신이 죽으면 육은 사라지고)

영은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간다.

<자막과 설명>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사는 자의 육과 영은 생명권에 거합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 육은 사라지고 영은 영원한 생명의 세계로 갑니다. / 그러나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의 육과 영은 사망권에 거합니다. 그러다가 육신이 죽으면 육은 사라지고 영은 영원한 사망의 세계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게 됩니다.

④ 해당 영상

<자막과 설명> 세상에서 120층짜리 건물 100개를 얻고 사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으니, 구세주 예수님을 믿고 온전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을 배경으로 삼고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에서 영원히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주님께서 더욱 깊이 알아듣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저마다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씀을 해 주시니 마음과 정신을 다해 잘 듣기 바랍니다.

<영상3> 예수님 출현

<예수님 말씀>

삼위일체인 창조주 하나님과 나 예수와 성령님은 사람의 ‘육신’과 ‘영혼’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귀히 창조하였다. 영혼이 구원받으면 그 영이 영원한 천국에서 살도록 무한한 가치로 귀히 창조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은 창조주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고 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아니함으로 인간으로서 동물같이, 식물같이, 바닷고기들같이 무가치하게 살기만 한다.

너희 육신이 창조자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육신이 원하는 대로 마음껏 행하며 살다가 죽으면, 영이고 육이고 그냥 무(無)로 사라진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예수를 안 믿고 살다가 그 영과 육이 무로 끝나기만 한다면 내 이같이 걱정하지 않는다. 육신이 죽는 것으로 끝나고 말면 이 세상에서 삶을 살 때만 걱정하고 말면 된다.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과 나 예수는 육신이 죽고도 영원히 살도록 영혼을 창조해 놓았다.

창조주 하나님과 구세주 나 예수를 믿고 사랑하고 말씀에 순종하며 성령 안에서 의롭게 살다 죽은 자의 영은 그 행위대로 천국이나 낙원이나

선영계 쪽으로 가게 하였다. 그러나 창조주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은 자들과 믿었어도 형식으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산 자들의 영혼은 그 행위대로 음부, 무저갱,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을 받으면서 사탄들과 함께 살게 하였다.

고로 자기 영혼 구원을 위해 육신이 세상에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구세주 나 예수를 진정 믿고 말씀에 순종하며, 죄를 지으면 회개하고 살아야 육도 잘되고 형통하고 영도 구원받아 육이 세상에서 살 때도 생명권 안에서 고통 받지 않고 살게 되며 영원한 천국을 얻고 영원히 살게 된다.

너희 육신이 땅에서 나 예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롭게 살수록 너희 영이 더욱 하늘의 영으로 변화되어 살게 된다. 그러다 육이 죽으면 영도 천국이나 낙원이나 선한 영계로 가서 영으로서 계속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지 않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지 않은 자들의 영혼은 지금도 육과 함께 사망권에 살면서 자신이 지은 죄의 고통을 받으며 살고 있다. 그러다 때가 되면 영원한 고통의 세계인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 받으며 살게 된다.

너희는 정녕코 알아라. 나 예수가 너희를 위해 시대 십자가를 져 주고 마지막으로 나의 재림을 위해 역사하는 섭리사에 생명들을 불러오고 있다. 그러나 알고도 나의 섭리역사로 오는 생명들을 막고 나의 역사인 섭리사를 악평하고 방해하는 자들의 영혼은 정녕코 영계 대기소를 거치지 않고 그대로 사망으로 가서 영원한 지옥으로 간다. 나 예수를 불신하고 거역한 죄다.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나 나의 역사를 막는 것이 나를 배신한 것이 되어 그 연고로 그 육도 영도 행위대로 받는 것이다.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고, 구원주인 나 예수를 믿고, 내가 이 시대에 보낸 자의 말을 믿고 사는 것이 지구 세상을 다 얻고 사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사는 것이다. 이는 인생이 어렸을 때부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다.

<영상4>

① 태양 - 수, 금, 지, 화, 목, 토, 천, 해, 명

\ /
인간

<자막과 말씀> 창조주 하나님은 사람의 육과 영을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가치로 창조해 놓으셨다. 이를 가치 있게 영원히 쓰려면 하나님과 나 예수를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받아야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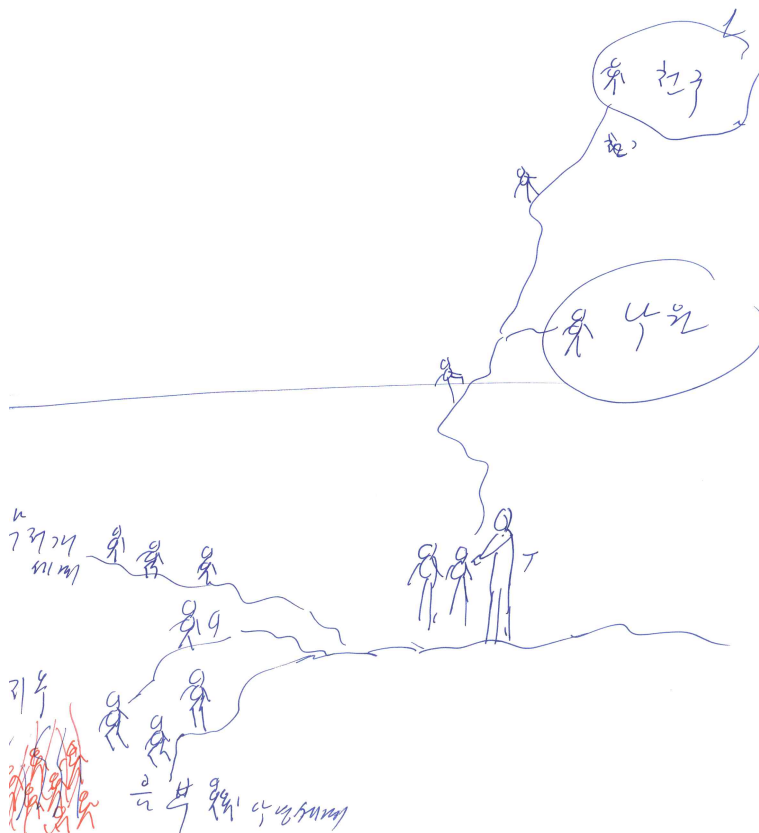
② 영아기 - 유아기 - 소년기 - 청년기 - 중년기 - 노년기 - 무덤
동물들도 이같이 살다가 죽는다.

→ 하나님 예수님 안 믿고 살면 동물처럼 이렇게 살다가 끝난다.

<자막과 말씀> 그러나 창조주와 메시아를 믿지 못하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함으로 온전한 구원을 못 받아서 인간으로서 짐승 살듯이 살다가 죽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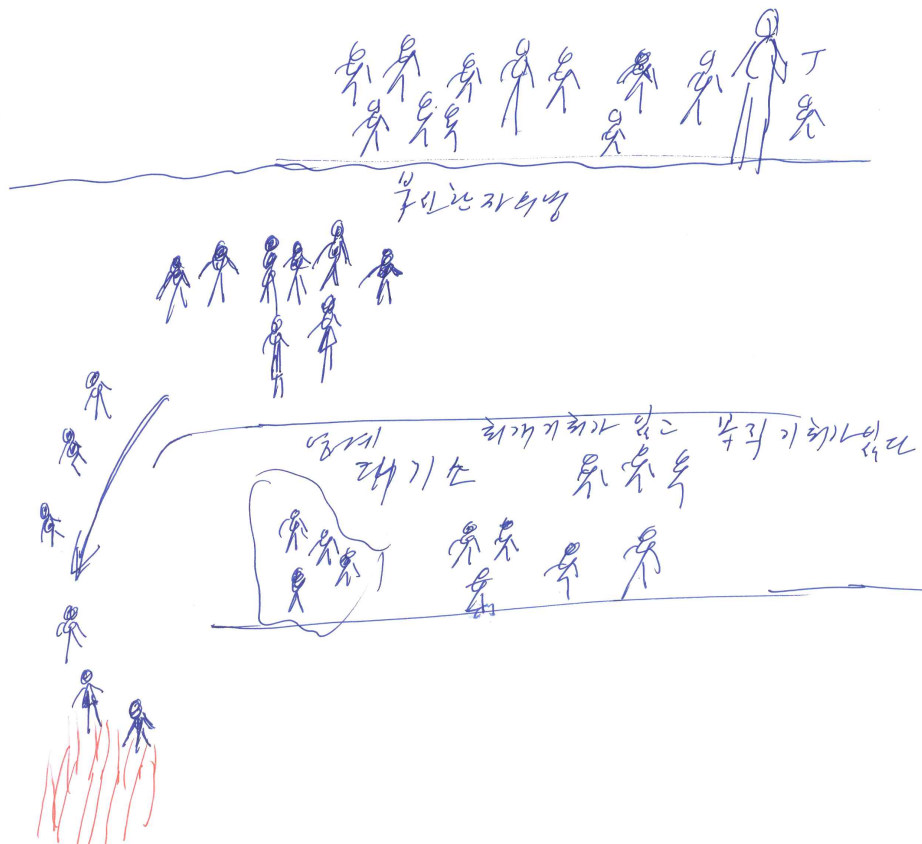
③ 사람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모습

<자막과 말씀> 그러나 이렇게만 끝난다면 내 무슨 걱정이겠느냐.



<자막과 말씀>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는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낙원이나 천국으로 간다. 그러나 나를 믿지 않은 자, 믿어도 잘못 알고 믿은 자, 형식으로 믿은 자는 육신이 죽으면 그 영이 영원한 고통의 세계 지옥으로 가서 영원히 고통 받으며 산다.

④ 표현



<자막과 말씀> 나의 역사를 모르고 산 자들의 영은 영계 대기소에 머물면서 시대 말씀을 듣고 회개할 기회가 있고 복직의 기회가 있다. / 그러나 나의 역사에 와서 알았으면서도 불신하고 배신하고 악평한 자들은 히브리서 6장 4~6절 말씀과 같이 다시 회개의 기회를 주지 않는다. 나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자막> 『[4]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5]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 놓고 욕되게 함이라』 (히브리서 6장 4-6절)

교회를 다녀도 가르쳐 주고 인도하는 자들이 제대로 몰라서 제대로 못 가르쳐 준다. 고로 배우는 자들도 제대로 모르고 교회만 다니게 되어 제대로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또 내게 배워서 가르치는 자에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죄를 진정 사함 받고 육도 영도 진정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리라.

성경은 나 예수요,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이 시대에 자기중심으로 성경을 풀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다. 거기에 빠지지 말아라. 인간의 가르침이나 인간이 제시하는 구원의 길은 인간에서 끝난다. 오직 나 예수를 중심하여 참된 진리를 받아라. 그러려면 이 시대 말씀을 들어라.

나 예수가 먼저 나를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 너희를 새 역사로 불렀다. 먼저 세상에서 기르다가 때가 되어 불렀다. 너희 구원을 위해 불렀으니 인생에 있어서 이같이 큰 부름이 없다. 귀히 생각하고 끝까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자.

이 부름을 소홀히 하면 다시 부를 때까지 믿지 않음으로 인한 고통을 받는다. 또한 다시 오려면 긴긴 시간이 걸린다. 이번에 마지막으로 부른 사람도 있으니 이 부름을 진정 귀히 여기기 바란다.

나 예수가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류의 죄를 지고 대신 죽어 주었다. 다른 자를 믿어서는 절대 구원이 없다. 너희 인생이 시작되어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듯이, 나의 부름을 귀히 여기고 쉬지 말고 끝까지 믿어라. 마치 숨을 쉬다가 안 쉬면 사람이 죽듯이, 너희도 나를 믿다가 안 믿으면 그 영도 육도 사망권으로 넘어가 죽은 자가 되고 그로 인하여 사망의 고통을 받게 된다.

나 예수의 말을 정녕 믿고 행하자.

너희를 구원하는 주 예수다. 살롬.

<영상5>

<자막과 말씀> 사람이 태어나 크면서 제일 먼저 할 일은 ‘자기 구원’을 이루는 일이다.

①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먼저 이 역사로 와서 사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믿고 의지함으로 나의 시대 말씀을 가르치고 구원 역사를 가르쳐 생명을 보호하고 구원하여라.

②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나 예수가 ‘복음’으로 불렸을 때 응하지 않으면, 다음에 보다 못한 장소로 부르게 된다. 다시 올 때까지 선(善)으로 오지 못한 연고로 형벌을 받게 된다. / 어떤 사람은 이번에 마지막으로 불렀다.

③ 해당 영상

<자막과 말씀> 너희 인생이 시작되어서 죽을 때까지 숨을 쉬듯이, 나의 부름을 귀히 여기고 쉬지 말고 끝까지 믿기 바란다.

④ 예수님 인사

<자막과 말씀> 인생이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가르쳤다. 사랑한다. 살롬.

<축 도>

지금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말씀을 들은 섭리세계 모든 자들과 온 세상 모든 자들에게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